

# 순창지역의 男根形 立石이 세워진 마을의 비보숲에 관한 고찰

- 八旺, 台村 마을의 비보숲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Enclosing Groves of the Village which Standing Stone of Penis Form is existing in Sunchang Region - Centered on Enclosing Groves of Palwang and Taechon Village -

박재철, 노재현

우석대학교 건축토목조경학부

Park, Jae-Chul, Rho, Jae-Hyu

Div. of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on identifying spatial structure of Palwang and Taechon village and dealing with restoration direction of village spatial structure and village grov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identified that the standing stone of penis form is not standing stone for praying son but complementing that for enforcing enclosed function of enclosing village groves. It was considered that village entrance and entrance road, village grove of Taechon village must be restored for being identified as standing stone of penis form of spatial structure of village. It was considered that the above is essential to connect with ecotourism of Sunchang-gun region. It was identified that Palwang village grove is very good in conservation state, but Taechon village grove has been destructed mostly by various development. It was identified that Palwang village grove is high in species diversity and in scare value as mixed forest, landscape value. The dominant tree of Palwang village was *Pinus densiflora* and that of Taechon was *Salix glandulosa*. *Salix glandulosa* was used pavilion tree, main tree in both village. It was identified that *Carpinus tschonoskii* is showing the most rapid growth in tree height and *Salix glandulosa* is showing the most rapid growth in tree breadth diameter of all kind of tree. It was considered that *Pinus densiflora* was planted first of all and deciduous trees were complemented later. It was considered that simple forest of *Pinus densiflora* has been changed into mixed forest by artificial affect in the long term. It was considered that *Salix glandulosa* in Palwang village grove must be indicated as legal protection tree according to present criteria of protection

tree selection in Korea. And it is considered desirable that standing stone of penis form and village grove in Palwang village must be indicated unitedly as cultural conservation element.

본 논문은 우석대학교 2001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I. 서론

우리나라 마을 입구나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을숲, 들탑, 선돌 등은 대표적인 자생풍수라 할 수 있으며(이상훈, 1997) 마을숲은 마을이 형성될 때 마을의 비보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후 마을에서 의도적으로 보호하는 가운데 信仰性, 神聖性이 첨가된 것으로 나무를 薪炭材로 주로 사용하던 시기에도 잘 보존된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새마을운동 등으로 많이 소멸되었고 계속적으로 훼손되어 왔다.

순창지역에서도 다수의 마을숲이 형성되어 왔으며 순창지역에는 <그림1> <그림2>와 같이 특히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造型立石인 男根形 立石이 八德面 山東里 八旺 마을과 德川里 台村 마을에 세워져 있으며 풍요다산의 상징 문양이라고 하는 연꽃문양이 조각된 남근모양의 입석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세워져 있다(송화섭, 2000). 경주 여근곡의 남근석이나 <그림 3>의 정읍 원백암의 남근석보다 잘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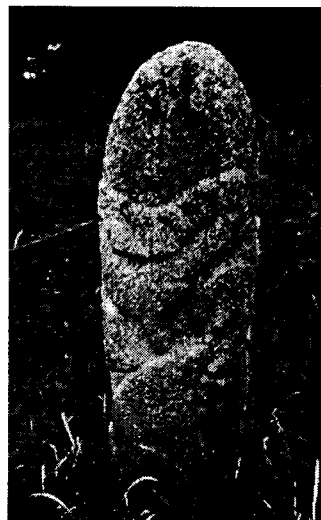
긴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김두규, 1999). 송화섭(2000)은 민속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입석이 아니라 비보기능을 위한 입석임을 밝힌 바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들 남근석과 정읍시 칠보면 원백암 마을의 남근석이 전라북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이 두 마을은 전통이 비교적 잘 보존된 마을로서 원백암 마을의 비보숲이 느티나무 한 주만 남아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잔존 비보숲의 상태 또한 양호하다.

순창지역에서는 비보입석과 더불어 이 두 마을에 비보숲이 잔존하고 있는 데 본 연구는 남근형 비보입석이 세워진 두 마을의 비보숲의 특성을 밝히고 향후 복원 등에 대하여 마을의 공간구조 차원에서 다름으로서 전통 마을의 복원과 순창군의 생태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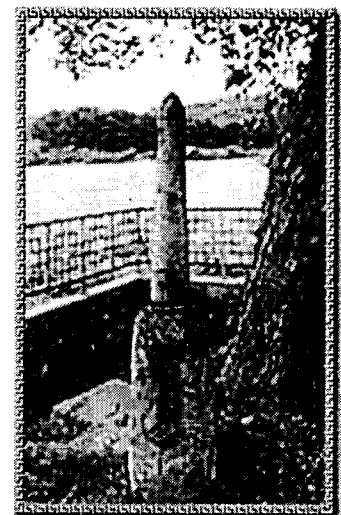
## II. 연구방법



<그림 1> 팔왕 마을의 남근형 입석



<그림 2> 태촌 마을의 남근형 입석



<그림 3> 정읍 원백암 마을의 남근형 입석

문헌조사, 주민과의 면담을 토대로 팔왕, 태촌 마을숲에 대한 현지조사를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수행하였고 비교 분석을 위하여 정읍시 칠보면 원백암 마을의 남근형 입석과 마을숲은 2001년 5월에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시 실측을 통하여 마을숲의 길이, 면적, 지형, 형태, 유형, 시설, 마을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였고 소유형태, 숲의 조성동기, 보호품격 지정여부, 내력 등은 주민과의 면담, 관련문헌조사, 보호수지(산림청, 1984)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임상은 측수법에 의하여 분류하였으며 교목층의 전 수종을 기록하고 출현종수, 총개체수, 교목 상층부 수종의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흉고둘레, 수관폭, 입목밀도 등을 金櫛相식 측수기와 실측을 통하여 파악하고 보식수종을 조사하고 대상지역의 주요수종의 특성을 도내 다른 지역의 숲들과 비교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한편 숲내의 이용관련시설과 인간활동의 내용을 기록하고 각 인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Ⅲ. 팔왕, 태촌 마을의 비보숲의 특성

#### 1. 일반적 특성

마을 비보숲이란 마을의 허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조성된 다목적 기능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숲을 말한다. 한국적인 傳統立地觀으로 볼 때 시야가 트인 부분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마을숲이 虛한 부분을 막기위해서(補) 自生적으로 조성(이상훈, 1997)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을이라는 場所가 일정한 크기로 정해지고 그것을 둘러싼 外部와는 대조적으로 內部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한계 또는 경계선(K. Lynch의 Edge에 해당)이 필요한 데 마을숲도 마을의 領域性(territoriality)을 확보하고 마을의 虛한 부분을 碑補하기 위해서는 마을과의 관계를 고려한 선행연구(최덕원, 1989)에서 지적한 것처럼 防風, 防沙, 防潮, 防水, 防濕, 防乾, 防鹽基, 防霧, 防雪, 防塵, 防音, 防獸, 防敵, 防犯을 위한 마을의 울이며 防厄, 防疫鬼를 위한 마을의 울로서 전남지방에서는 우실(村垣)이라 불리워지는 다목적 기능공간이다. 또한 마을숲은 마을의 축제를 벌이는 등 놀이, 제사 등을 하는 다목적의 共同體적인 공간이다. 이를 마을숲의 물리적인 기능(마을의 울),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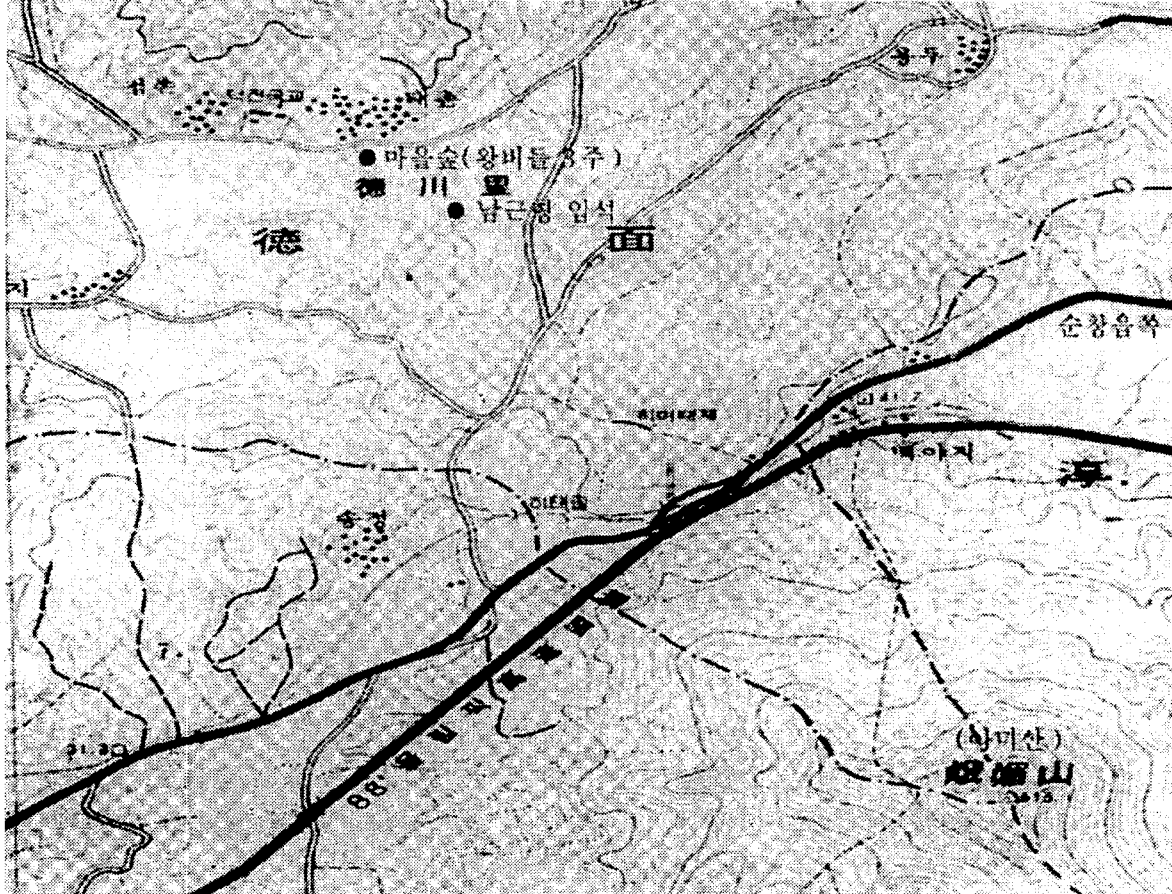
적인 기능(마을의 울), 사회적인 기능(공동체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팔왕 마을의 규모는 15-20호의 작은 마을이었고 팔왕숲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존해 있는 면적이 1,168㎡로서 전북도의 평균은 3,078㎡(박재철 외, 1995)인데, 진안군의 마을숲의 전체 평균면적인 2,755.4㎡(박재철, 1999)의 42.4%로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마을숲이었으며 태촌 마을은 40-50호 규모의 마을로서 태촌숲은 개천을 따라서 선적으로 남근형 입석까지 연결되어 이 남근석이 숲의 입구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는 거의 소실되고 왕버들 3주만이 잔존해 있는 620㎡의 숲만이 마을텃터처럼 남아 있을 뿐이기 때문에 현재 잔존상태의 숲의 면적이나 길이는 의미가 없다.

이는 정읍시 태인면 원백암 마을의 남근석도 현재는 한그루의 느티나무와 석장승과 함께 놓여 있는 데 남근석이 놓여진 곳이 마을의 입구이고 현재 왕버들 한 주가 수로를 따라서 마을의 진입부에 잔존해 있는 데 마을 공간구조로 볼 때 앞부분이 허하므로 비보하기 위하여 남근석과 석장승을 세우고 비보숲은 수로를 따라서 현재의 느티나무에서 왕버들까지 연결해서 선적으로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 훼손되어진 것으로 볼 때(박재철, 2001년 5월 현지조사)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태촌 마을 村老의 증언에 의하면 남근석이 현재의 자리로 이동되고 나서 남근석을 보호하는 보호각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그러나 이 남근석은 비보기능을 위한 것인데 후대에 와전되어 祈子信仰으로 잘못 인식, 보호각을 세운 것으로 보이므로, 복원시 보호각은 복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표지판에는 창덕리 남근석이라고 되어 있는 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남근형 입석이 창덕리에 속한다 할지라도 마을의 공간구조적으로 볼 때 태촌 마을의 비보입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덕천리 태촌 남근형 입석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한편 마을의 공간구조가 현재의 아스팔트 도로가 나면서 현저히 변화되었는데 원래의 마을의 입구는 현재 남근형 입석이 세워진 길로 해서 순창읍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마을 진입로가 바뀜으로 인해서 남근형 입석이 마을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또한 경지정리 등을 하면서 하천변의 왕버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마을

<그림 4> 태촌 마을의 마을숲과 남근형 입석, 조산인 아미산의 위치



<표 1> 진안지역 마을 비보숲과 순창 남근형 입석이 세워진 마을 비보숲의 일반적 특성 비교

구 분	진안지역 마을 비보숲	팔왕숲	태촌숲
면 적 (평균)	2,755.4m <sup>2</sup>	1,168	620
길 이 (평균)	99.2m	73	30
폭(평균)	27.8m	16	21
형 태	선형 16(59.3%), 선+장방형 4(14.8%), 선+불규칙형 4(14.8%), 선+사다리꼴 1(3.7%), 선+동산형 1(3.7%), 불규칙형 1(3.7%)	선형	장방형
지 형	평단지 20(74.1%), 완경사지 4(14.8%), 급경사지 3(11.1%)	평단지 및 완경사지	평단지
위 치	마을앞 20(74.1%), 마을입구 6(22.2%), 옆 1(3.7%)	마을앞 및 마을 입구	마을앞
유 형	개천변, 하천변 7(26.0%), 도로+개천변 5(18.5%), 개천+숲통과형 5(18.5%), 도로변 3(11.1%), 숲통과형 3(11.1%), 동산형 2(7.4%), 도로변+동산형 1(3.7%), 논 가장자리형 1(3.7%)	도로변+개천변	도로변+개천변
정자	사각정자 6(22.2%)	사각정자	사각정자
돌담, 선돌	돌담 10(37.0%), 선돌 8(29.6%)	선돌(남근형) 1, 선돌 3	선돌(남근형)
점경물	돌제단 1(3.7%)	석련지 1, 석수반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운동시설 5(18.5%)	없음	없음

의 공간구조가 현저히 왜곡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을의 입구와 진입로의 복원이 시급하고 마을숲의 복원을 통해서 남근형 입석이 비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비보입석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공간구조의 복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송화섭, 2000)에서는 '태촌마을 건너편의 아미산이 높이 솟아 위압적으로 마을을 누르는 형세이어서 대응수단으로 압승형 비보입석으로 남근형 입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을에서 바라볼 때 아미산과 남근형입석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음을 볼 때 이를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태촌숲은 朝山인 아미산의 양각이 9°로서 通口忠彦의 연구에서 양각의 범주를 6°-10°의 범주를 말했는데 양각 9° 부근의 산이 갖는 의미로서 '스카이라인 만이 아니라 山服에도 흥미가 가게 되고 시야로서는 山容 전체를 용이하게 넘어볼 수 있는 동시에 스카이라인을 보는 데도 약간의 머리운동으로 조금 올려다 본다고 하는 감으로 포착할 수 있다' 라고 말한 영역으로 角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할 수 있다. '스카이라인과 山腹을 함께 볼 수 있는 양각이므로 山容을 기반으로 하는 산이 되어 가장 좋은 角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조망 양각을 가진 곳에 마을 및 마을숲이 조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양각을 가진 조망경관은 崇山思想으로서 산을 '우러러보다' '존경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사회규범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강병기, 최종현, 임동일, 1996). 視距里를 보면 마을과 아미산의 거리가 2.5km로서 Jubenville의 분류에 의하면 1/4-1/2~3-5mile의 범위에 해당되어 中景의 시거리에 해당(김귀곤, 1994 재인용)되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鹽田의 분류에 의하면 조망경관에 해당하는 시거리이고 條原修의 시거리의 분할에 의하면 中景구역(질감구역)과 遠景구역(지형구역)의 사이의 구간(2.1-2.8km)에 해당(김귀곤, 1994 재인용)하여 質感과 地形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박찬용, 현중영, 1999).

팔왕숲은 규모는 작지만 비교적 훼손이 적게 되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가치있는 비보숲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남근석이 민간신앙적인 祈子의 대상이 아니라 비보기능을 하는 비보입석이라는 것은 팔왕마을에서는 비보숲이 비

교적 잘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히 나타나는 데 팔왕 마을은 비보숲과 함께 남근석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기능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경우와 같이 비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임을 선행연구(송화섭, 2000)에서 팔왕 마을의 '남근형 입석은 여근곡의 지세를 누르고 음기 누출을 차단 시키고자 마을 수구맥이에 소나무숲을 가로질러 조성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팔왕숲의 특징은 다른 숲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경물인 석련지와 석수반이 나타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도 역시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물(연못)도 비보, 염승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볼 때 비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사료되어진다.

## 2. 임상 및 식생구조적 특성

임상분류 기준으로 볼 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진안지역이 활엽수림이 92.6%이고 혼효림은 전무하고 전북도의 경우 혼효림이 15%에 불과한데 팔왕숲은 혼효림으로서 희귀한 가치가 있는 숲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체수는 팔왕숲, 태촌숲 모두 진안군 전체의 평균인 44.2개에 비하여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개체수를 보였다. 그러나 출현종수에 있어서는 팔왕숲은 5종으로서 진안군의 평균 출현종수인 3.4종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규모가 작지만 수종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우점종도 팔왕숲은 소나무, 태촌숲은 왕버들로 나타나 진안의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가 우점종인 경우와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팔왕 마을의 향이 북향으로 겨울철의 찬바람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상록수인 소나무가 우점종인 숲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나무의 단순성을 보완하고 계절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낙엽활엽수를 보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는 반대로 태촌마을은 남향으로 겨울의 북풍을 막아야 할 필요를 상대적으로 덜 느꼈기 때문에 하천변의 생태적인 특성에 맞는 왕버들로 숲을 조영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고면에서는 진안지역의 23.1m, 전북도의 21.4m에 비하여 평균이 팔왕, 태촌숲 모두 16m로서 수고가 비교적 낮은 숲이었다. 평균흉고직경은 48.9cm로서 진안지역 마을 비보숲의 평균인 50.6cm와 거의 비슷하였다. 입목밀도는

<표 2> 진안지역 마을 비보숲과 순창 남근형 압석이 세워진 마을 비보숲의 식생 구조 비교

구분	진안지역 마을 비보숲	팔왕숲	태촌숲
입상	활엽수림 25(92.6%), 침엽수림 2(7.4%)	혼효림	활엽수림
개체수(교목상층부, 평균)	44.2개체	16개체	3개체
출현종수(교목상층부, 평균)	3.4종	5종	1종
주요 우점종(교목상층부)	느티나무 15(55.5%), 개서어나무 6(22.2%), 상수리나무 3(11.1%), 소나무 2(7.4%), 밤나무 1(3.7%)	소나무	왕버들
수고(교목상층부, 평균)	23.1m	16m	16m
흉고직경(교목상층부, 평균)	50.6cm	47cm	59cm
입목밀도(교목상층부, 평균)	0.024주/m <sup>2</sup>	0.014주/m <sup>2</sup>	0.005주/m <sup>2</sup>
평균수간상대거리지수(RSD)	38.9%	53.4%	89.9%

<표 3> 팔왕숲의 수종별 특성 비교

구분	개체수	평균수고(m)	평균흉고직경(cm)	가장 큰 노거수의 평균흉고직경(cm)	가장 큰 노거수의 수고(m)
소나무	10	15.6	40.3	60	23
개서어나무	2	21	49	52	22
왕버들	2	16	81	110	18
팽나무	1	15	42	42	14
느티나무	1	12	50	50	12

팔왕숲은 진안군지역 보다 배 이상 높은 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촌숲은 진안지역의 1/5수준에 불과하였다. 상대수간거리지수를 보면 팔왕숲과 태촌숲이 각각 53.4%, 89.9%로서 타 연구(김태진,1998)의 42.5%(전북 장수의 화양리 마을숲과 노하리 마을숲)와 비교하여 볼 때 아주 疎한 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종별 개체수를 보면 팔왕숲의 경우 <표 3>과 같이 소나무가 10주로 총 16주(교사목 3주 제외)의 62.5%로서 가장 많았으나 평균수고는 개서어나무가 21m로서 수직생장을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흉고직경에 있어서는 왕버들이 81cm로서 부피생장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서어나무가 신장생장을 잘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생태적인 극상수종이 가장 잘 자란 것으로 나타나 자연조건이 생태적인 성장에 방해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개체목으로 볼 때는 수고가 가장 큰 노거수는 소나무가 23m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흉고직경이 가장 큰 노거수는 왕버들로 110cm로 나타났다. 이 왕버들은 수종별 보호수 선정기준이 수령 100년, 수고 20m, 흉고직경 90cm로 볼 때 수령이 100년 이상

되었고 수고가 20m, 흉고직경이 110cm이므로 보호수로 지정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소나무의 생장이 상대적으로 느린 점을 감안할 때 숲의 조성과정을 추론해 보면 데 소나무가 가장 먼저 식재되고 그 후 다른 활엽수종들이 보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태촌 마을은 왕버들 단일 수종의 숲이며 또한 팔왕숲도 가장 부피생장이 왕성한 수종이 왕버들이었으며 두 마을 모두 사각정자가 숲 내에 세워져 있는 데 두 마을 모두 정자가 세워져 있는 정자목으로 왕버들을 선택한 것도 왕버들을 대표적인 수종으로 여긴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이는 왕버들이 하천변에 수분이 많은 곳에 주로 잘 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데 이러한 생태적인 특성을 태촌숲은 잘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팔왕숲도 그러한 것이 엿보이고 있다.

비보숲이 수구막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팔왕숲의 경우도 현재의 남근석 옆으로 수로가 있었는데 수로를 변경하여 공간의 구조가 바뀌었고 경관이 변모된 것으로 나타나 수로의 복원에 의한 남근석 주변의 경관 복원도 함께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태촌숲도 개천을 따라서 마을 오른쪽의 다리에서 부터 남근석까지 비보숲이 선적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로의 변경에 의해서 그러한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 복원시 이러한 수로의 복원과 함께 경관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팔왕숲의 남근형 입석 주위에 촌노의 증언에 의하면 느티나무 노거수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고사하여 그 후 단풍나무를 보식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단풍나무는 이식을 하고 원래의 수종인 느티나무를 보식해야 남근형 입석 주변의 경관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팔왕숲도 세 주의 고사목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우점종인 소나무 중 가장 큰 노거수의 동공이 형성되어 부패되어 가면서 수세가 약화되어 있었다. 수목에 대한 생육관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해서 남근형 입석과 함께 보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을숲에 보식된 수종을 보면 팔왕숲은 벚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가이즈까 향나무, 향나무, 홍단풍, 무궁화 등을 보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전통 숲에는 전혀 맞지 않는 수종들로서 시급한 이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태촌숲의 경우도 느티나무, 배롱나무, 무궁화를 보식했는데 이들도 왕버들의 기존 수종과는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식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IV. 요약 및 결론

순창지역의 팔왕마을과 태촌마을의 남근석은 기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입석이 아니라 비보숲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남근형 비보입석으로 사료되어진다. 현재 세워져 있는 남근형 입석이 공간구조 속에서 파악되기 위해서는 마을입구와 마을 진입로 및 마을숲의 복원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팔왕숲은 원형이 그래도 잘 보전되어 있지만 태촌숲은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에 남근형 입석이 마을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 있는데 마을과의 관련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마을입구와 마을 진입로 및 마을숲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순창의 생태관광과 문화를 연결하는 테마관광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을입석이 마을 입구에 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볼 때 태

촌의 남근형 입석도 마을입구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서 부터 마을숲을 따라서 마을 진입로가 연결되어져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고증을 통해서 마을공간구조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팔왕숲의 경우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종의 다양성이 높고 혼효림으로서 희소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팔왕숲은 소나무가 우점종이었지만 왕버들이 정자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태촌숲도 왕버들의 비보숲을 이루고 있고 정자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정자목의 대표수종으로 왕버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팔왕숲은 마을이 북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겨울철의 차가운 북풍을 막기 위해서 상록성인 소나무를 주수종으로 하지 않았나 판단된다. 그에 반해 태촌숲은 하천을 따라서 조성된 비보숲이므로 하천변에서 왕성한 자람을 보이는 왕버들을 식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팔왕숲의 5개 수종을 분석해 볼 때 수직적인 성장은 개서어나무가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왕버들이 부피생장을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의 생육상태로 보아 소나무가 가장 먼저 식재되었고 그 다음으로 낙엽활엽수들이 보식되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소나무 위주의 비보숲에서 혼효림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변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팔왕숲의 왕버들은 현재의 보호수 지정기준(이경택, 2000)에 의하더라도 보호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수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남근형입석이 잘 보전되어지기 위해서는 팔왕숲도 문화재로 지정해서 같이 보전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강병기, 최종현, 임동일. 1995. 도성 주요시설의 입지·좌향에 있어 산의 도입에 대한 시각적 특성 해석의 시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0(4) : 251-264.
2. 강병기, 최종현, 임동일. 1996. 전통공간사상에 관한 연구(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 31(1) : 9-25.
3. 김귀곤. 1994. 도시공원녹지의 계획.설계론.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114-119.
4. 김두규. 1999. 순창 문화유산 탐구 I. 순창문화원.
5. 박재철. 1998. 농촌 정주생활권내의 마을 비보숲의 실

- 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6(3) : 152-161.
6. 박재철.1999. 진안지역 마을숲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5(1) : 56-65.
  7. 박재철 외.1995. 전북지역 마을원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우석대 논문집 제17집 : 237-255.
  8. 박재철.1997. 전북지역 도로주변림과 마을원림의 비교고찰. 한국농촌계획학회지 3(1) : 33-40.
  9. 박재철.1997. 전북 농어촌지역 해수욕장 배후림에 관한 연구. 조경연구논총 제2집 : 1-8.
  10. 박재철.1997. 전북 농어촌지역 마을숲과 해안숲의 비교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3(2) : 133-142.
  11. 박재철.1997. 농촌 정주생활권내의 마을 비보숲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3) : 152-161.
  12. 박재철.1999. 진안지역 마을숲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5(1) : 56-65.
  13. 박재철.2000. 진안읍의 마을숲과 마이산에 대한 조망경관의 관련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5(5) : 309-316.
  14. 박찬용, 현중영.1999. 조선시대 사대부 마을 풍수의 시각적 구조. 한국정원학회지 17(4) : 23.
  15. 송화섭.2000. 비보풍수 관점에서 본 순창지역의 조형입석 고찰. 전북전통문화학회 창립 기념학술발표집 : 1-16.
  16. 이경택.2000. 노거수 자원의 가치와 보호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17. 이상훈.1996. 진안지역 마을숲 이야기. 진안문화 5 : 179-199.
  18. 최덕원.1989. 우실(村垣)의 信仰考. 한국민속학회지 22 : 120.